

해설
기사

‘전국 대학 기초과학분야 평가순위 발표’ 그 이후는...

학과평가제엔 웃음 전국대학평가엔 울상

교육부가 94년도 각 대학 부설 기초과학 연구소 지원규모를 정하기 위해 전국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연대엔 이과대에 대한 평가결과 우리대학이 17위로 예상외의 낮은 평가를 받은 것에 대해 자연과학대학 교수들 중심으로 문제제기들 간에 거센 파문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기초과학 연구소에 대한 연구과제를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연구비를 지급해 오던 종전의 연구비 지급방법에서 전국대학을 3개 연구집단으로 세분화하여 중점지원하기로 방침을 전환하여 앞으로 교육부의 연구비 지원규모 구성에 반영되게 된다.

또한 평가의 대상은 기초과학 연구소였으나 이과대학과 학과가 심사대상이 되어 대학별로 기초과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학의 기초과학 연구소를 평가받았다는 여론으로 불쾌해 이번 평가의 중요도가 비단 한 연구소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지적할 수 있다.

이번 심사에 따라 선정된 대학들의 기초과학 연구소들은 각각 ‘중점연구소’, ‘지역거점연구소’, ‘장려연구거점연구소’로 분류되어 5년간 61억 4천 4백만원의 기초과학 연구지원비를 배정받게 되어 그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특히 중점연구소를 받은 대학은 연구과제에 있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순위가 구체적으로 발표된 것을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대학의 위상정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대학의 전략발전연구와 같은 외부 관련 활동에도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수권이 중심이 되어 서울 연세대의 연구소 지원규모가 11월에 있었던 2차 서류평가때보다 기초과학 연구소 수가 서울 수원대 중부과학연구소와 물리 화학과에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이과대 차원의 전반적인 자료조사 및 효과적인 자료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전공학과 환경과학 등이 배제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서울연세대 연구처(처장: 정복근 교수)는 교육부의 관련 공문은 모두 수월필적으로 전달하였으나 유전공학과의 경우 학과 특성상 공과부로 분류되어 자료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우주과학과와 물리 화학과에 대한 평가는 기초과학 심사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인 서울대 자연대 학장 이인규 교수가 성명조각을 통해 평가대상에서 포함시켰다고 해명했다. 이에 덧붙여 기초과학 연구소들의 연차별로 우주과학과와 이온 방사선학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과별의 순위가 성명조각과 일치하지 않는 의견을 강력히 제기하기도 하였다.

교육부 교수들에 의해 제기되는 두 번째 문제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전면타당한 이과대 차원의 공문전달이 전무했다는 것이다. 평가의 중요도도 불쾌

결과가 결코 낙관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초과학 연구소들은 이후 지역거점 대학 후보의 확정에 필요한 논쟁제기 제출에 대한 협의조차 전혀 불성신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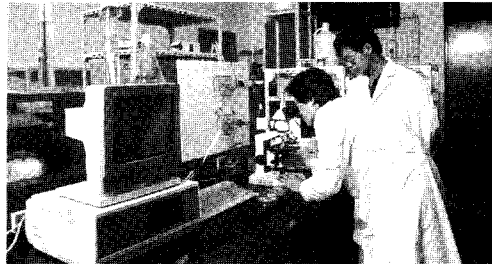
교육부의 방침에 따르면 상위 18개 대학으로 선정된 후 2개분야 4개 연구과제이상이 선정되어야 지역거점지원대학으로 확정될 수 있다. 자과대에 따르면 기초과학 연구소들은 이에 대한 공문조각과 연구제기서를 작성하기에는 촉박한 1개월을 남겨놓고 수월필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교육부의 평가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자과대 교수들이 충실하게 준비한 시간

의의를 소홀하고 같은날 부처장 및 심부서장에게 합의한 문서를 하는 등 강한 반발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수요일에는 총장이 참여한 교육부의 후자 자연과학과 교수들의 회의로 자과대와 평가에 대한 입장, 평가에 대한 전상조치 촉구, 책임자의 학위에 의거한 책임추궁, 이번 평가를 주관했던 기초과학연구원의 파행적운영에 대한 문제제기 등을 내용으로 한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현재 많은 자과대 교수들은 기존의 기초과학연구소가, 연구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점, 그 파행적인 운영이 10년째 지속되어 바뀌지 않음에서 비롯

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10년 전에는 무한정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초과학연구소들은 그간의 평가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했으며 평가결과가 좋지 않은 것은 자과대의 노력과 자질이 부족한 결과라고 맞대응하고 있어 이후 조속한 학교차원의 대응조치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우리학교내 행정직의 공문전달체계가 다시 정비되어야...”

데스크칼럼

김 중 석
(관심자)

요즘은 어느 자리를 가도 성희롱이 화제다. 서울대 우부 조교가 “교수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 승소판에서 비롯된 현상이다. 그러나 그 대화를 들어보면 진지하지않고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 성희롱과 관련한 진보적인 인식은 고사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에 대한 논쟁도 없다. 남성들의 이야기가 범람의 판정을 비호하는 것 같은데 하다못해 “법원이 법리를 따르지 않고 사회적 분위기를 편승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제기조차 들을 수 없다. 하소 이상할 것 없는 행동에도 “그저 성희롱이지”라든가 “난 3년만된 것으로가 편파적”하는 수준이다.

우 조교의 승소로 남성들이 조심하고 직장내의 분위기가 나빠진다는 보도가 뒤따랐는데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보통 대강당을 한 중앙대자보판은 제재에 대한 교수의 성명서보다는 수석시론 내용을 알리는 대자보가 처음을 장식하였다. 동문들에서 교시할까 지 기는 길에는 문제의 수도 교수를 풍자한 그림이 걸려있다. 남의 일집된 성

성희롱과 학교이미지

희롱이 바로 우리 학교에서 일어난 것이다.

본질 외면한 논의들

성희롱을 직장내의 다분한 생활에서 탈락시켜 여기는 풍토이며, 그리고 성희롱에 항변하는 여성을 별한 여자로 취급하는 풍토에서 그동안 성희롱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이것은 성희롱인가, 아니면 무엇도 못하겠고”하는 불만의 소리는 그동안 성희롱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내에서의 성희롱은 결코 그것이 주는 충격보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밝혀진거 아니냐” 또는 “다른 학교와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일침에 먼저 사로잡혀 가는 것이다.

일견치 사색하면 “성희롱도 성희롱”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린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 학교가 불미스러운 일로 언론에 거론되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 아닌 사담도 없다. 지난 6월 중 교수와 미교과 학생들의 공방전에는 이렇게 알고 왔는지 중앙 일간지 기자들이 달려 왔으나 학생들은 그들의 참관을 거부했다. 학생들이 그동안 사법내에서 조용히 일을 처리하려 했던 것은 그들도 경솔한 것으로서 학교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희롱이란 문제도 아니고 성희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갖고 있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 다른 학과들에서 “미교과는 성희롱”이라는 인식을 갖는 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으며, 형상에서 학교측이 자숙적으로

성희롱을 직장내의 다분한 생활에서 탈락시켜 여기는 풍토이며, 그리고 성희롱에 항변하는 여성을 별한 여자로 취급하는 풍토에서 그동안 성희롱은 사각지대로 방치되었다. “이것은 성희롱인가, 아니면 무엇도 못하겠고”하는 불만의 소리는 그동안 성희롱이 얼마나 공공연하게 자행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우리 학교내에서의 성희롱은 결코 그것이 주는 충격보다는 “공공연한 비밀이 밝혀진거 아니냐” 또는 “다른 학교와 예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자조적인 일침에 먼저 사로잡혀 가는 것이다.

진상규명 선행해야

미교과 학생들은 수업을 거부하고 농성해 들어간 날은 4월29일, 사회에 알려진 날은 5월6일, 7일이라는 기간은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를 마무리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위한 진지한 성의를 보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당시자인 수 교수는 기자의 가진 두 차례만 있던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애썼을 뿐 보도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요청도 한 적이 없다. 5월6일의 공방전과 관련해서는 “기자들이 나왔으니 모르지만 일단 왔으니 그들이 추궁하시라고 할 것이지 때문에 나는 참관을 원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제는 검증보다 감지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연거푸는 진상을 수 있을 정도로 터지는 날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미교과 학생들의 주위에 사설이라면 그들의 요구가 설득되고 납득할만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수 교수와 미교과 학생들을 정제해야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미교과 학생들간의 문제라 아니냐. 감정하고 객관적인 진상규명을 회피한 채 손을 접고자하고 학생들의 불만형상을 통해 적당할 안에서 마무리하는 것은 몇몇한 보도가 아니냐. 이것은 미교과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자과대 ... 기과연의 파행운영 비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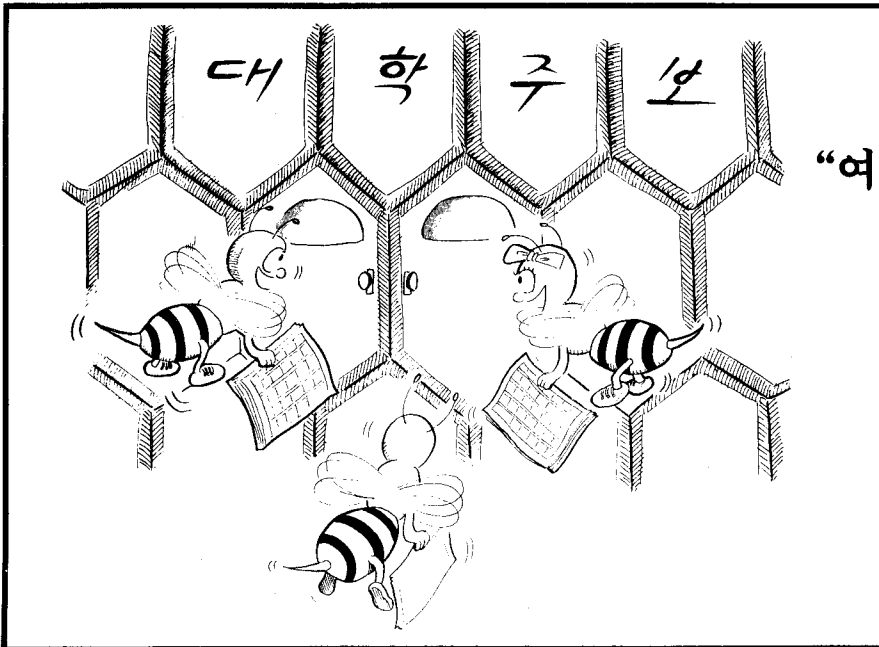
기과연측 “자과대 자질 부족 탓”

대학의 경우와 같이 자과대 총체적인 인력 및 제반시설을 충분히 반영한 자과대 교육부가 제출되어야 하는 별 대학적인 평가라기보다는 학과에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과대 교수들은 이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연세대에 편재해 있는 기초과학 연구소의 행정직리상의 패배성과 파행적운영으로 말미암아 수월필적 소속 관계교수에 대한 연락이 전무했다는 주장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에 1차 서류제출이 마감되던 11월에 2차 서류제출이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 자과대 학장을 비롯한 자과대 전체 교수들에게 편견도 자료제출요청공문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자과대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또한까지 중대한 문제점은 교육부의 평가

를 갖지 못함에 따라 부실한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러한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학교가 18개 후보대학 중 최하위인 장려연구거점대학으로 지정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이에 대해 서울 연세대 연구처 연구과장은 관련공문은 서울 수원 모두 동일한 시기에 전달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전적으로 준비자의 책임임을 주장했다.

자과대 교수들은 지난 6월 교육부 발표이후 각 일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하자 이번 평가에 대해 비토소 알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자과대 교수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교의 명예에 실추, 자과대의 심각한 위상손실등 심각한학술동원단위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이에 대한 자과대 학과장



“여러분이 모아온 꿀로 가득 채우고자 합니다”

어렵게 글을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공작 대학주보로서 찾아오십시오. 당신을 반겨주는 대학주보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멋진 글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습니다. 대학주보는 여러분의 삶이 진솔하게 담긴 하나 하나의 생각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 학 주 보 사